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전통시장에 활력 복돋는다

매주 1만6000여명 관광객들 필수코스로 떠올라 매대 운영자들 하루 평균 70만원 이상 매출로 연간 100여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이 전통시장에 재기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성공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주남부시장은 야시장과 청년몰 효과로 인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3년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 전통시장 최초로 조성된 남부시장 야시장이 개장 2주년을 맞아 체류형 관광객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마련, 시장상인 매출 증대 등 성과를 북돋고 있다. 남부시장 야시장이 열리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각각 7000여명과 9000여명 등 매주 총 1만6000여명이 남부시장을 찾는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남부시장 야시장은 현재 청년

들과 다문화가정 등이 창업을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총 45개 매대가 운영되고, 매대 운영자들은 하루 평균 7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연간 100여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메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총각네 스시'는 야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월 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등록금을 해결하고 창업자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매대에서는 운행 초반 야시장 참여를 반대했던 배우자들이 아내를 돕기 위해 나서서 등 다문화가정 화합에도 일조하고 있다. 야시장이 운영되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기존상인들의 매출도 경종 뛰어들라 상인들의 매출이 기존보다 10~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부시장의 경우 새벽에 점포를 여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야시장 운영 전에는 오후 6시만 되면 문을 닫는 점포가 주를 이뤘지만, 현재 야시장 운영일에는 100여개 점포가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개장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8일 남부시장 천변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남부시장 상인동아리 '속풀이풍물단'의 식전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기념행사에서 야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앞으로 남부시장을 대표하게 될 남부시장 B와 캐릭터가 공개됐다. 또, 남진 등의 초대가수의 축하공연과 함께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진행됐다. 남부시장 야시장은 이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정기 영업시간인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고객센터 및 불거리 조성하여 시민, 관광객이 둘러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조선왕조의 전통의례 다시보기 2016 조선왕조 의례 태조어진 봉안행렬 재현행사가 지난 29일 전주시청 노송광장과 태조로 경기전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진발의식을 마친 어진행렬이 전주시청을 출발 경기전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 출생아 감소 혼인도 역대 최저

도내 출생아 수 전년보다 7.2% ↓ 혼인은 5600건... 인구절벽 대책 시급

전북의 인구추세가 심상치 않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혼인도 역대 가장 수치를 보여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6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의 출생아 수는 28만3,1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6,800명(-5.6%) 감소했다. 전북에서 같은 기간 태어난 출생아는 9,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00명(-7.2%)이 줄어 전국평균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북 지역의 연간 혼인 건수가 1만 건에도 못 미칠 것이라 전망도 제기된다. 전북은 관련 집계 시작된 2000년 이래 지난 2013년 1만건 선이 붕괴됐다. 향후 출생아 수를 가능할 수 있는

혼인 건수는 1~8월까지 5,6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00쌍(-6.7%)이 감소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같은 기간 도내 이혼 건수는 증가해 2,6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00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전국의 이혼건수는 7만1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00건 줄어들어 전북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보통 혼인 건수가 감소하면 이혼 건수도 덩달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은 혼인 감소에도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지역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8월 이후 결혼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혼인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내 곳곳 생활체육대회 열려

가을철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과 엘리트 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대회와 스포츠경기가 전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29일 전북대 체육관에서 생활체육인들의 잔치인 '제11회 전주시장애 우리사랑 생활체육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시 생활체육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전주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주그라운드에서는 '전주시장애 생활체육 스킨스쿠버대회'가 전주시 스킨스쿠버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같은 날 '제19회 전주시장기 태권도 대회' 초, 중, 고 남·녀 선수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됐고 이외에도 '제5회 전주시장애 정구대회'가 동호인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 덕진체육공원 정구장에서 열렸다. /김영재 기자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 행정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소음영향법 위반 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어"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원고(항공대대 이전 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의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위반, 토지소유자 등 의견절차 위반,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 위반, 소음영향법 적용위반, 소음피해 위반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항공대대 소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예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전주시 전미동 옛 35사단 부지 내에 있던 206항

공대대를 전주시 외곽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8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전주시와 국방부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함께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6월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생태도시국 양연수 국장은 "사업이 예상보다 5개월 정도 지연됐지만 만회공정을 세워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면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를 해소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16회 국무총리배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도아리 경진대회

KOREA YOUTH CLUB COMPETITION

11월 12일 전북대학교

- ▶ 주최: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 ▶ 주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JTV 전주방송
- ▶ 후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 참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및 청소년시설 청소년동아리
- ▶ 참가비: 무료